

협회소식

2006 한국홀스타인품평회 제 1회 추진위원회 개최



본회(회장 조병대)는 5월 15일 한국낙농경영인회(회장 황병익),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 낙농진흥회(회장 양정화) 등 낙농관련단체장 및 관련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6한국홀스타인 품평회 제 1회 추진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침체되어있는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낙농관련 모든 기관들과 소비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로 한국홀스타인품평회가 아닌 한국낙농박람회로서 행사를 격상시키는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준비기간이 촉박하고, 박람회 개최에 따른 예산확보, 장소 등의 문제로 인해 2006년도에 박람회로 격상시키는 것에는 무리가 있음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본회에서 개최하는 한국홀스타인품평회는 등록·심사·검정 사업 등 개량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젖소의 혈통과 능력에 의한 고능력우 발굴과 낙농가의 소득향상, 소비자와 연계한 “기능성우유” 개발의 확대 및 브랜드화를 목적으로 낙농가의 개량도 확인을 통한 젖소개량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있다.

본회 홈페이지 새롭게 단장



본회는 회원농가들에게 최신 개량자료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 홈페이지를 수정·보완하여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하였다.

이번 개편은 세련된 인터페이스 구성 및 주요 콘텐츠의 직관적인 배치와 더불어 적극적인 기능 개선을 하였으며, 국내외 많은 우수 홈페이지의 벤치마킹을 통하여 회원농가 수준을 고려한 디자인과 구도로 협회의 주요업무에 관한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내외 개량기술 관련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구성으로는 협회에 관련된 규정 및 법규와 각종 서식 및 양식을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지원이란 메뉴를 새롭게 구성하여 협회보도자료, 홈페이지 이용안내, 웹사이트 장애 조치, 뷰어 프로그램 다운 등 홈페이지 이용 시 필요한 내용들로 구성하였다.

2006년도 제3회 이사회개최

본회는 5월 26일 제3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제9대 대의원(중동) 보궐선출 및 직원 인사발령, 회원 가입 현황, 사업추진 현황 등에 대한 보고와 사무



국장 임용 승인, 인사규정 개정,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 및 소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의 건이 상정되어 이종헌 사무국장 임용과 인사규정(일부 수정) 개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 및 소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의 건에 대하여는 차기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업계소식

농림부_베트남전역구제역 확산에 따른 국경검역 '경계령'

농림부는 지난 4월 베트남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이 지역에 진출해 있는 국내 축산업계나 여행하는 축산인들에게 발생지역 방문을 삼가고 귀국시 철저한 소독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베트남에서는 2004년도에 발생한 고병원성 A가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부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도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국내 양돈, 사료, 동물약품 등 축산업계는 최근 들어 베트남 시장개척 및 확대를 위해 현지 출장이 잦아지고 장기체류 근무자의 교체 등 입국시 구제역 병원체 유입 위험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양돈, 사료, 동물약품 단체에 검역 협조를 당부하고 검역원으로 하여금 베트남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지역 여행객에 대한 휴대품 검색, 신발소독 등 입국 검역과 홍보활동을 강화토록 했다.

한편 베트남은 소 7백만두, 돼지 2천5백만두, 가금 2억5천4백만수가 사육되고 있으며, 구제역, 돼지콜레라에 대해 예방접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규탄 긴급 기자회견

지난 5월 18일 12개 시민사회단체와 한·미 FTA저지농축산대책위원회는 서울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국장은 “5월20일 미국의 한국수출 도축가공장 현지조사가 끝나는 대로 정부는 미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선언할 예정이기에 이에 앞서 회견을 개최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하며 “이번 결정은 국민들을 광우병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참가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치아조사만 으론 광우병 소 나이 확증이 어렵다는 점과 이번 미국 현지 시설 위생점검단 파견도 신청 작업장의 50%만 점검하는 요식행위라고 주장했으며, 30개월령 이하 수입방침에 대해서도 “미국은 생산이력제가 도입되지 않아 전체 소 사육두수 중 단 15~20%만이 월령 감별이 가능하다”며 “미국 소비자단체들도 자국의 쇠고기가 안전치 않다는 캠페인을 벌이는데 한국정부는 미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군다나 국내에선 2007년이 돼야 대형 음식점에서만 원산지 표시제가 시범 실시 되므로 안전망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고 우려했다.

한편 참가단체들은 이날 수입재개방침 철회를 위한 향후 지속적 감시활동과 더불어 미산 쇠고기 수입결정 권한과 관련해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혀 미산 쇠고기의 국내 정착이 순탄치 않은 것을 시사했다.

‘도축세 폐지’ 입법발의 추진

김영덕의원(한나라, 경남 의령·함안·합천)이 도축세 폐지를 위한 입법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방세 중 시·군에 해당하는 도축세를 폐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중개정안을 마련,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도축세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주요 축산물 수출국가들에게는 없는 도축세가 우리나라에서만 부과되고 있다”며 “이러한 도축세는 도살자가 납부해야 하지만 축산농가에게 그대로 전가되어 연간 4백억에서 5백억원의 생산비 부담을 축산농가들에게 지우고 있는데 도축세는 일반세로서 그 세수가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도 특별히 기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도축세를 지방세로 징수하고 있는 시·군의 경우는 전체 지방세수 중 도축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0.2%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그 세수감소에 따른 시·군의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구축산농협 사료가격 최고 3.5% 인하

대구축산농협(조합장 우효열)이 지난 1월 한우 사료 가격인하에 이어 5월16일자로 또 다시 축종별로 최고 3.5%에서 최저 0.7%까지 사료가격을 인하했다.

대구와 경남·북지역 양축가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고 있는 대구축산농협 사료공장은 이번 가격인하 조치로 지난 2004년부터 연이어 7차례 사료가격을 내리게 됐다. 특히 가격인하를 선도하면서 타사료회사의 가격인하 유도과 양축가의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대구축산농협 사료공장은 철저한 원가관리 시스템과 투명경영을 지향하며 이익을 양축가에게 환원한다는 경영방침을 갖고 운영되면서 매년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대구축산농협은 축산컨설팅팀을 운용하면서

한우육질진단과 거세, 임신진단(한우·돼지), 사양관리 등 각종 축산컨설팅을 무료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질병의 사전차단과 양질의 수의진료 서비스 제공, 동물약품과 축산기자재의 저가판매 등을 담당하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양축가의 정보교류 장소 제공과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총체보리 전용 '영양' 다수확 품종입증

농촌진흥청 작물과학원은 지난 11일 전북 김제시 부량면 등 경종-축산 연결체 사업단 4개소 시범재배포에서 연결체 관계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총체 사료용 보리 품종 '영양'의 생산성에 대한 농가현장평가를 실시했다.

총체보리 재배는 식용보리 재배 감소에 따른 경종농가의 소득보전, 양질 조사료 급여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등 경종농가와 축산농가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어 앞으로 총체보리의 수요는 급격히 증가될 전망이다.

총체보리 '영양'은 잎이 넓고 대가 굵으며 키가 커서 기존 곡실용 보리보다 수량이 30%이상 증수하는 품종으로 작물과학원에서 2005년 전국 경종-축산농가 연결체 154개 사업단 중 시범재배를 원하는 48개 사업단에 종자 10톤을 공급하여 50ha 규모를 농가에 실증재배 했다.

천하제일사료 '황소마블 시리즈' 출시

천하제일사료(사장 윤하운)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비한 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비거세우 전용사료인 '황소마블 시리즈'를 개발 출시했다.

천하제일사료는 미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면 냉장육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비거세우도 수입육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육질등급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비거세우 전용사료인 '황소마블 시리즈'를 개발하게 됐다는 것이다.

또 비거세우도 육질등급간 가격 차이가 많이 벌어져 육질등급에 따라 농가간 수익차이도 많이 벌어지고 있어 비거세우 농가의 수익성 향상을 위해 '황소마블 시리즈'를 개발 출시하게 됐다. 이 같은 배경을 깔고 개발된 '황소마블 시리즈'는 비거세우 2등급 이상 육질 등급 출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출하체중 또한 증가시켜 농장의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품으로 24개월에 출하체중 7백40kg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은주 천하제일사료 비육우PM은 "황소마블 시리즈는 기존 제품들과는 개념과 기술면에서 완전히 차별화된 제품"이라면서 "고객에게 두 배의 기쁨을 주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힌다.

실제로 사양시험결과 일당 증체량이 5.2% 개선됨으로써 추가로 수익을 올린 데다 육질등급도 좋아지고, 출하체중도 늘어함으로써 실제로 발생하는 추가수익은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천하제일사료는 이번에 개발한 '황소마블 시리즈' 제품의 경우 영양소 함량을 대폭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상승된 비용을 제품가격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고, 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우선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우지조금관리위원회 '청소년의 한우 소비실태 및 학교급식에서의 한우고기

선호도 조사 연구용역 추진

청소년의 한우 소비실태 및 학교급식에서의 한우고기 선호도를 조사해 장래의 한우고기 소비 세대에 우리 한우를 알린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남호경)는 최근 '청소년의 한우 소비실태 및 학교급식에서의 한우고기 선호도 조사'를 주제로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약 3개월 후엔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취향을 갖고 한우의 어떤 면을 좋아하는지 결과와 나와 관리위는 이를 한우홍보 활동에 접목해 홍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현재 한우의 점유율이 낮은 학교급식에 한우가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비책을 마련 하겠다는 관리위의 복안이다.

관계자는 "장래 소비계층인 우리 청소년들의 입맛이 수입 쇠고기와 인스턴트 식품에 길들여지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이들에게 우리 한우의 참 맛을 알리고자하는 장기적인 대비책의 준비작업"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울산농업기술센터 '초음파 육질측정 연사회' 개최

지난 17일 울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록)에서 전국농업기술센터 축산담당자, 한우비육농가, 축협 축산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초음파 육질 측정기술 연사회'가 열렸다.

이번 연사회는 세계 축산현황과 당면과제, 초음파 이용 출하적기 판단 고급육 생산기술에 대한 강의와 우수 브랜드 육성 핵심기술 지도사례 및 구역역 차단 방역요령 등의 세미나와 함께 전국

최고의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울산시 농업기술센터 윤주용 박사팀의 초음파 검사를 이용한 육질 측정방법에대한 시연을 실시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취약한 국제 경쟁력을 가진 한우산업의 승패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위생적인 고급육의 생산에 달려 있다"고 밝히고 "초음파를 이용한 생체 판정 방법은 육질과 육량의 발달 과정을 살아있는 상태에서 판정해 비육우의 출하 적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중요한 기술"이라고 말했다. 특히 "초음파는 조직을 비파괴로 통과하므로 반복 사용해도 동물에게 주는 피해가 전혀 없으며 판정 결과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등 가장 효과적인 생체 판정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전두수 등록으로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쇠고기 생산이력 추적시스템 문제가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한우협회(회장 남호경)는 지난 17일 긴급회장단 회의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한 협회의 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우협회 회장단은 생산단계에서부터 전 두수에 대해 DNA검사를 실시,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 적극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남호경 회장은 "도축단계에서 샘플링 검사만 실시하는 현 시스템으로는 한우산업을 보호하기에 부족하다"며 "현 상황에서 만약 한우에 BSE가 발생 한다면 한우산업은 한 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으며, 생산단계에서 전 두수 DNA검사를 통한 등록을 요구하는 것은 산업을 지키려는 농가들의

절실한 목소리임을 명심해 달라”고 관계자들의 이해를 촉구했다.

협회는 또 현재 각 지역별로 이뤄지고 있는 유통감시단 활동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중앙단위 운영협의회를 구성키로 하고 초대 운영협의회장으로 현 임경철 한우협회부회장을 선임했다.

아울러 최근 한우와 생김새가 흡사한 뉴질랜드 산 리무진 생우(암소)가 오는 7월 중 수입될 예정이라며 각 지역별로 이에 대해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도축세 폐지, 한·미 FTA 저지, 부루세라 근절 등 현안 10여가지에 대해 6시간 동안 열성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한우 홍보매장별 차별화 ‘제기’

지난 15일 농협중앙회에서는 한우자조금관리 위(위원장 남호경)가 (주)다인커뮤니케이션에 의뢰한 ‘한우소비량 조사를 통한 한우홍보방안’에 대한 연구과제의 최종 발표가 있었다.

특히, 이날 발표에서는 여성의 경우 자신과 가족의 기호, 그리고 가족 건강을 위한 한우를 선호한다고 답한 사람이 전체의 44.3%로 조사돼 이를 적극 활용한 홍보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지만 한우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인정 하지만 구입시 한우진위여부에 대해서는 50%이상이 의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다시 한번 지적되기도 했다.

이번에 발표한 자료에서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은 각 유통채널별 쇠고기 판매현황과 이에 대한 각각의 홍보 전략을 수립한 것.

발표자는 백화점의 경우 고급육 수요가 거의 대

부분인 만큼 고급스러운 디스플레이로 소비자를 공략하고, 할인점의 경우 수입육과 한우, 육우의 경쟁이 가장 치열한 곳인 만큼 가격적인 면에서 유리한 부분을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홍보활동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급식에서는 학부모 단체 등에게 건강이나 영양적인 강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수요를 늘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뉴질랜드나 호주 등 수입육의 경우 협회에서 포스터나 가격표 로고 등을 배포해 각 매장의 통일성을 강조하고 자국 쇠고기의 홍보효과를 높이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우리도 한우라는 고유이미지를 강조할 수 있는 로고나 마크를 개발해 소규모 정육점에서도 활용해 한우라는 고유 브랜드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홍보 전략을 잡아나가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농림부 ‘우수 축산물브랜드’ 책자 발간

‘2005 소비자가 선정한 대한민국 우수 축산물 브랜드’ 책자가 발간됐다.

농림부는 이 책자를 발간하면서 우리의 우수한 축산물브랜드가 소비자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특히 브랜드경영체에게는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했다.

한우브랜드 13개(남해화전한우, 대관령한우, 양평개군한우, 상감한우, 뜨레?누, 순한한우, 인성마춤한우, 장수한우, 상강한우, 천지한우, 황토한우, 늘푸름, 횡성한우)와 돼지브랜드 12개(도드람포크, 동설맥포크, 약돌돼지, 보성녹돈, 크린포크, 소백산속돈, 마늘포크, 유채꽃, 포크밸리, 포크포크, 하이포크, 한라산도아지)가 수록된 이 책자는 국내 축산물브랜드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제작됐다.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축산회관 입주식 개최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회장 지재학)는 지난 5월 12일 축산회관 지하 회의실에서 협회 지도회장, 업체대표 및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회관 입주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회장 지재학)는 인사말을 통해 앞선 회장님들의 노고로 인해 오늘의 이 자리가 있었음을 시사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전국의 수정사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영채 고문(중앙대 명예교수)은 축사에서 지금이 브랜드 사업 및 가축개량이 있기까지 수정사들의 희생정신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축산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에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조병대)는 격려사에서 “국내 가축의 능력 향상은 물론 우수한 혈통 보존을 위해서는 종축개량협회와 인공수정사협회가 밀접한 관계를 갖고 공존공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관계자들은 축산신문사(회장 윤봉중)의 건배 제의에 따라 한국축산업 발전과 인공수정사업 발전을 위해 보다 더 단합해 나갈 것을 굳게 다짐하였다.

지리산낙농농협, 혈통등록우 육성사업

지리산낙농농협(조합장 박인석)은 종축개량을 통한 두당 생애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제사업을 내실화 하는 것이 조합원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을 주는 것이며 한국낙농을 선진화시키는 지름길이라고 말하고, 이러한 인식 아래 인월사업장의 기능을 제정비하고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1. 혈통등록우 육성사업(1,000두 육성규모)

무작위로 젖소를 구입하여 한우와 교배하여 초임만삭을 되면 분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혈통등록우를 시중가격 대비 30~70만원을 더 주고 구입하여 계획교배용 종모우로 인공수정 후 초임만삭이 되면 개량농가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고 있다.

2. 유기질비료공장

환경보전 및 양축가의 분노 자원화를 위하여 연간 30만톤 규모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고 있다. 생산된 비료는 남원을 비롯한 장수·함양 등 인근 시설하우스단지 및 과수·원예작물·고령지 특수작물 재배농가에 판매하고 있다.

3. TMR 사료공장

1천톤월을 생산하는 TMR공장은 낙농가들에게 균일하고, 양질의 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시작하였으며, 장기적으로 관내 전체농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4. 톱밥공장

1999년 4월부터 가동에 들어간 톱밥공장은 축산분뇨의 오·폐수 방지를 위한 수분조절제의 원활한 공급과 환경오염 방지목적으로 운영

능력 기준	구입가격	비고
기본가격	시중가격 + 30만원	- 부모 능력은 임계능력 이상 - 3~12개월령 대상
어미 심사점수 80점 이상	시중가격 + 40만원	
어미 305일 10,000kg 이상생산	시중가격 + 40만원	
어미 심사점수 80점 + 1만kg 이상	시중가격 + 50만원	
어미 심사점수 85점 이상	시중가격 + 50만원	
어미 305일 15,000kg 이상생산	시중가격 + 50만원	
심사점수 85점 + 15,000kg 이상	시중가격 + 70만원	

※ 분양 문의 : 한국축육개발협회 홍보개발부 02-588-9301

되고 있으며, 7,500kg/일을 생산하고 있다.

5. 조사료 무역업

안정적이고 양질의 조사료를 조합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시작한 조사료 무역업은 연간 16,000톤을 담당하고 있으며, 많은 낙농가들이 호평을 하고 있다. 특히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중국산 양초는 저렴하면서 품질이 우수한 걸로 분석되어 많은 낙농가로부터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LG생명과학, 신개념 젖소 유방염 백신 마스터백 출시

LG생명과학(대표 김인철)은 지난 5월 24일 서울 강남 엠버서더 노보텔에서 바이오기술을 이용한 친환경 젖소 유방염 백신 '마스터백(MastaVac)'을 출시 했다고 밝혔다.

“마스터백은 유방염 증상을 완화시켜 치료기간 단축 및 항생제 사용 감소 효과가 뛰어나다”며 특히 “유방염에 의해 폐업 위기에 처했던 목장에 마스터백 신제품을 접종, 목장을 정상화시킨 적이 있어 이 제품에 대한 낙농가의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LG생명과학 관계자는 “젖소 유방염 백신을

국내를 비롯해 미국, 브라질 등 8개국에 특허 출원했다”며 “향후 1,6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세계 유방염백신 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세계 메이저급 회사와의 제휴도 추진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대한제당(주)무지개사료 전남본부 낙농주부아카데미 수료식 거행!



대한제당(주)무지개사료는 전남 고흥, 보성지역에 2005년 4월부터 실시한 1년간의 낙농주부 아카데미 수료과정을 마치고 1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점차 세분화 되어가는 낙농사양관리 및 주부 낙농인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료회사에서 제공 할 수 있는 낙농관련정보와 기술을

장기간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주부낙농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수료식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낙농주부아카데미의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1년 동안 10번의 교육시간을 가졌는데, 송아지 관리부터 착유우 관리까지 각 단계별 급여프로그램 및 선진 사양 기술을 전파하고 미래낙농의 비전을 제시하여 향후 낙농의 사업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교육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특히, 무지개사료와 기술제휴를 하고 있는 영국 BOCM PAULS사의 낙농 전문가인 David Webster씨의 개별 농장방문을 통해 농장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개선부분을 협의하여 농장경영에 도움을 제공하였다고 말했다

대한제당㈜무지개사료의 낙농주부아카데미 시행은 다른 무엇보다도 고객과의 긴밀한 관계 구축을 통해 영원히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발돋움한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낙농주부아카데미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404지역 송재웅 부장은 처음 시작 할 때는 8명으로 시작하였는데, 수료식은 15명이 참석할 정도로 주부낙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고마움을 전하며, 향후 보다 농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겠다고 감회를 나타내었다. 무지개사료는 향후에도 계속해서 전국적인 낙농주부아카데미를 통해 농장의 실질적인 농장운영 노하우 및 최신기술을 제공하여 미래낙농의 비전을 제시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낙농자조금 사무국 구성 완료



성민제 주임, 이상기 사무국장, 김인혜 직원, 김진중 과장 (좌측부터)

낙농자조할 동자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가 최근 사무국 구성을 완료함에 따라 낙농자조금사업 추진이 좀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무국 구성은 관리위원회에서 위촉한 인사위원이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지난 1일 최종 확정, 초대 사무국장에 이상기(전 한국축척개량협회 유우개량부장)씨를 선출하는 등 총 5명으로 사무국을 구성했다.

이들 사무국은 낙농자조금 거출이 시작된 1일부터 정상업무에 들어갔으며, 사업비 집행 및 낙농자조금 사업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해외소식

캐나다, 5월기준 최고 젖소종모우 10위 명단

캐나다 젖소유전능력평가 센타가 발표한 5월 LPI지수 기준 최고 홀스타인 젖소종모우명단은 다음과 같다.

1. 로맥스 200HO04820 FORTALE LOMAX 2348
2. 타이타닉 200HO03121 HARTLINE TITANIC-ET 2292
3. 골드윈 200HO03205 BRAEDALE GOLDWYN 2106
4. 지방시 200HO04624 BRIGEEN GIVENCHY-ET 2078
5. 가터 001HO06149 WELCOME GARTER-ET 2057
6. 파이널컷 200HO03280 *GILLETTE FINAL CUT 1986
7. 허버마스타 007HO07257 *BROAD COVE HARBORMASTER-ET 1984
8. 이미지 200HO00231 PENNVIEW L L H IMAGE 1974
9. 빅토리 200HO01528 CLAYNOOK VICTORY 1973
10. 모어 200HO01473 STANBRO MORE 1920

미국, 5월기준 최고 젖소종모우 10위 명단

미국 홀스타인협회가 8일 발표한 5월 TPI지수 기준 최고 홀스타인 젖소종모우명단은 다음과 같다.

1. 볼튼 Sandy-Valley Bolton-ET 29HO11111 TPI +1949
2. 저스티스 O-Bee Manfred Justice-ET

7HO6417 TPI +1931

3. 토이스토리 Jenny-Lou Mrshl Toystory-ET 1HO7235 TPI +1906
4. 버크아이 R-E-W Buckeye-ET 200HO4779 TPI +1896
5. 매리온 Veazland Marion-ET 14HO3831 TPI +1881
6. 젯 스트림 Applouis Jet Stream-ET 29HO10792 TPI +1863
7. 사키 Jeweled-Acres Sharky-ET 1HO7127 TPI +1856
8. 알톤 Bo-Irish Alton-ET 29HO10681 TPI +1839
9. 엔시노 BDG Genetics Encino-ET 1HO7154 TPI +1816
10. 마샬 Jenny-Lou Marshall P149-ET 7HO7359 TPI +1782

“美정부 광우병소 출생 확인 못했다”

· · · 미국 언론, 농무부 조사결과 비난

미국 농무부가 지난 3월 14일 앨라배마주에서 발생한 광우병 감염 소의 출생을 확인하지 못한 채 우리나라 기준으로 5월 3일, 최종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미국 언론들은 광우병 감염 소의 출생 장소 및 시기 등을 밝혀내지 못한 사실에 초점을 맞춰 미국 정부당국의 허술한 역학조사 결과를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미국 농무부는 동식물검역소 및 식약청과 공동으로 낸 최종 역학보고서를 통해 “동식물검역소의 조사가 광우병 감염 소의 출생을 밝혀지 못했다”고 언급하면서도 “치아 조사 등을 통해

해당 소가 1997년 사료금지정책 이전에 태어난, 10살 이상의 소인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P통신은 3일 ‘당국이 앨라배마주 광우병 소의 조사를 포기했다(give up)’는 비판 섞인 제목 아래 미국 농무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상세히 보도했다.

AP통신을 인용 보도한 3일자 <캐나다안비즈니스>도 “미국 정부당국은 광우병 감염 소의 나이를 확인시켜줄 기록을 찾지 못했다”고 비난하면서 한발 더 나아가 “소의 치아검사를 통해 나이가 10살 또는 그 이상이라고 판정했지만, 치아검사는 소의 나이가 5살이나 6살이 넘을 경우 신뢰할 수 없는 근사치에 불과하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최근 광우병 소의 출생장소를 찾지 못했다’는 제목의 워싱턴발 기사를 보도하며 “일부 소비자단체들과 입법자들은 광우병의 확산에 대응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안전 조치와 함께 동물 이력 추적 시스템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외에 <시카고트리뷴>을 비롯한 미국 내 다수 언론들은 당국이 광우병 소의 출생을 추적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역학조사 결과를 보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편집장은 “광우병 소가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 수 없다는 비과학적인 결론에 미국 내에서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는 비과학적인 결정에 근거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젖소검정능가 체세포 평균 29만5천

‘04년도 미국 젖소산유능력검정사업에 참여한 젖소들의 평균 체세포 수는 29만5천으로 사육규모가 큰 목장일수록 체세포수가 낮은 것으로 미국 호더스 데어리맨 3월호가 발표하였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목장 우군 평균 사육두수가 50두이하인 목장의 체세포수가 32만7천으로 가장 높고 100두에서 149두 사육하는 농가는 29만6천, 200두에서 299두 사육하는 농가는 28만2천이며, 2천두에서 2천999두를 사육하는 농가 체세포수가 가장 낮은 26만4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일 우유생산량도 50두이하 사육목장인 경우 62.5파운드인 반면 100두에서 149두인 목장은 67.9파운드, 2천두에서 2천999두를 생산하는 목장이 77.1파운드의 우유를 생산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미국, 젖소 불임관련 유전자 발견 번식을 향상 기대

통상 유전적으로 10% 정도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젖소의 불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전자가 발견되어 번식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미국 워싱턴주립대학 연구진이 발표하였다. 이들 연구진은 젖소의 유전적인 번식능력 차이 규명을 위해 1,500여두의 후대검정을 마친 젖소종모우들의 딸소기록들을 분석하여, 이중 가장 번식성적이 좋은 종모우 60두와 가장 떨어진 종모우 60두를 구분, 유전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CAST라는 유전자와 번식률을 높여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전체내 4개 부위를 발견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특히 CAST 유전자는 일반적으로 소의 부드러운 육질에 관여하는 유전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 유전자가 번식기관내 조직세포에서 발현되

는 것으로 밝혀져 유전자 변이를 규명시 소의 번식률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젖소 유방염 저항성 유전자 발견

일본 가축 개량 센터와 동물 유전 연구소는 4월 21일 북해도 축산 시험장과 공동으로 젖소 유방염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는 FEZL 유전자를 발견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연구는 소 유전체에 대한 연구로 FEZL 유전자에는 유방염에 대한 저항성이 높은 저항형과 낮은 감수형이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저항형을 가지는 젖소가 감염 방어 활성이 높다는 것을 증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를 활용한 종모우 선발시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딸소들에 대한 현장시험결과 초산한 딸소들의 평균 체세 포수 40만 이상인 비율 조사시 저항형 유전자를 가지는 종모우 딸소들에 비해 체세 포수가 훨씬 적은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보도되었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가 미국 과학 아카데미저널 최신호에 게재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일본 정부가 광우병 위험부위가 섞여있다는 이유로 수입재개 며칠 만에 금지시켰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다.

고이즈미 총리의 미국 방문에 맞춰 미국의 요구를 들어 줬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어제 도쿄에서 열린 미일 정부 전문가 회의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는 데 합의했다.

다음 달 중순 최종합의가 이뤄지고 7월부터는

미국산 쇠고기가 다시 일본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가했다가 광우병 위험부위인 등뼈가 섞여 있는게 발견되자 며칠 만에 수입을 중단했다.

그러자 미국은 그동안 빨리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라며 일본 정부에 압력을 넣어 왔다.

팬 미국 농무장관 “쇠고기먹고 광우병에 걸릴 확률보다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이 훨씬 높다.”

일본 정부는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내놓으라고 맞서며 반년 동안 줄다리기를 벌여 왔다.

이에 대해 미국은 35개 식육처리시설에 대한 재점검 결과를 재출했고, 일본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수입재개를 결정했다.

언론들은 홍콩과 대만에서 광우병 위험부위가 들어간 미국산 쇠고기가 계속 발견되고 있는 데도 고이즈미 총리의 퇴임 전 마지막 방미를 앞두고 선심을 썼다고 비판하고 있다.

日 26번째 광우병 감염소 발견

일본에서 26번째 광우병 감염 소가 발견됐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13일 5살된 홀스타인 소가 광우병에 걸린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농수산성은 성명을 통해 이같은 사실은 11일 일본 북부 홋카이도에서 광우병 양성 반응 검사를 실시하던 중 발견됐다고 말했다.

아키코 스즈키 농수산성 관계자는 이같은 사실을 농수산성이 13일 최종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2001년부터 지금까지 26번의 광우병 사례가 발견됐으며 식용을 위해 도축한 모든 소를 대상으로 광우병 감염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中"광우병 안 걸리는 소복제 성공"

· · · 라이양농학원 연구팀 개가

중국 과학자들이 '광우병 내성'을 지닌 송아지를 복제 하는데 성공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이는 한국의 황우석 박사팀이 지난 2003년 광우병에 걸리지 않는 복제 송아지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힌 지 3년 만의 일이다.

산둥(山東)성 라이양(萊陽) 농학원 연구팀이 복제한 이 광우병 내성 송아지는 몸무게 55kg에 달한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이 연구팀은 앞서 지난 2001년에도 광우병 내성소를 생산하는 프로젝트를 일본 연구팀과 공동진행해 송아지 두 마리를 복제 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고 신화통신은 덧붙였다.

그렇지만 이번 보도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실제로 광우병 내성소가 탄생했는지의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황우석 박사팀의 광우병 내성소에 대해서도 현재 과학계의 검증작업이 진행 중이다.

홍콩, 미국 쇠고기 수입 금지

홍콩은 16일 광우병 유입 방지를 위해 '해리스 랜치 비프(Hamis Ranch Beef)'가 운영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셀마 소재 쇠고기 가공공장에서 나오는 쇠고기 수입을 금지했다.

문제의 소고기 가공공장이 수출한 뼈가 딸린 쇠고기는 15일 홍콩 공항에서 적발됐다.

홍콩은 현재 30개월 미만 소의 머리와 척추뼈 등을 뺀 뼈 없는 고기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앞서 홍콩은 이 같은 정책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 회사 2곳의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다.